

페가수스 8강 진출...세 번째 우승 도전 날개펴다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기 1라운드 전적(무등리그)

◆1경기(4회 콜드승)

hp 서구 서비스 센터 0 0 0 1 -1

무등산 생태 요양병원 5 1 5 X -11

△승리투수 : 박범연

◆2경기(6회 시간 제한승)

금호상조 0 0 2 0 0 0 -2

페가수스 1 0 2 0 5 X -8

△승리투수 : 김상호 ▲홀런 : 이석우(5회 4점)

◆3경기(4회 콜드승)

자연환경 5 5 3 5 -18

송원 타이곤스 0 0 0 0 -0

△승리투수 : 박래준

◆4경기(6회 시간 제한승)

유한 김벌리 양술킹 0 0 1 1 4 0 -6

패밀리 1 0 2 3 2 X -8

△승리투수 : 장덕진

◆5경기(6회 시간 제한승)

재규어스 0 4 1 2 0 3 -10

파트너즈 1 0 0 0 2 0 -3

△승리투수 : 정경국 ▲홀런 : 김용신(3회 1점)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가 4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hp서구서비스센터와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우승을 향한 열전에 돌입했다.

무등리그 16강전으로 치러진 대회 1라운드에서는 무등산 생태 요양병원, 페가수스, 자연환경, 패밀리, 재규어스가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4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 토너먼트 자연환경 야구단과 송원타이곤스 야구단 경기에서 1회말 중전 2루타로 진루한 송원 타이곤즈 윤홍재가 투수 견제에 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운드에서는 무등산 생태 요양병원, 페가수스, 자연환경, 패밀리, 재규어스가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은 대회 첫 경기를 4회 콜드승으로 장식했다. hp 서구 서비스센터와 대결을 벌인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은 1회부터 5점을 뽑아내는 화력을 발휘

하며 4회 11-1 콜드승을 기록했다.

페가수스의 무등기 세 번째 우승 도전도 순조롭게 전개됐다. 시간 제한으로 6회까지 경기를 치른 페가수스는 금호상조를 8-2로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다. 페가수스의 이석우는 5회 만루포를 쏘아올리면서 대회 첫 홀런 주인공이 됐다.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도 뜨거운 공세로 송원 타이곤스를 상대로 8강행 티켓을 따냈다. 1·2회 연달아 5점을 뽑은 자연환경은 4회까지 18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4회 18-0, 콜드승을 기록했다.

패밀리와 재규어스도 8강행을 신고했다. 패밀리는 유한 김벌리 양술킹과의 경

기에서 선취점을 올린 뒤 꾸준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8-6 승리를 확정했다. 재규어스는 파트너즈와의 경기에서 선취점을 내렸지만 2회 4점을 만들며 역전에 성공, 10-3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또 지난 해에 이어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도 광주일보와 함께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4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6회말 1사 3루에 KIA 이범호가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절친’ 이범호·김주찬 승리 합작



‘호랑이 군단’이 4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KIA 타이거즈가 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2점포 포함 3안타를 터트린 이범호의 활약을 앞세워 4-3 승리를 거뒀다. 전날 1-2의 1점차 패배를 설욕한 KIA는 끝내기 패배를 기록한 LG를 3경기차 밖으로 밀어내면서 4강 청신호를 켜다.

‘절친’ 김주찬과 이범호가 승리를 합작했다. 1회 2사에서 3번 김주찬이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출루하자 옆구리 통증의 나

이범호 홈런 등 3안타·김주찬 2안타 2득점

안치홍, 볼넷 2개·호수비 등 ‘화려한 복귀’

지원을 대신해 4번 자리에 선 이범호가 응답했다. 이범호는 롯데 선발 박세웅의 포크볼을 잡아당겨 선제 투런포를 만들었다.

롯데 전준우의 슬라이더에 이어 KIA 서동욱의 동점포로 3-3으로 맞선 6회, 이번에도 김주찬이 뛰고 이범호가 쳤다. 1사에서 김주찬이 때린 공이 1루수 옆을 빠져 우익선상으로 굴러갔다. 김주찬이 망설임 없이 3루까지 내달렸고, 타석에 선 이범호가 1루수 뒤로 가볍게 공을 밀어내면서 적시타를 만들었다.

불펜진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선발 김운동이 5회 2사 2에서 볼넷에 이어 우전 안타를 허용하자 빠르게 불펜이 가동됐다. 좌완 고준호의 등판해 손아섭을 중전

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급한 불을 끈 뒤 김진우가 마운드에 올라 2이닝을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그리고 윤석민과 심동섭에 이어 8회 2사1루에서 마무리 임창용이 한 박자 빠르게 마운드에 투입됐다. 황재균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임창용은 9회도 탈삼진 하나 포함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시즌 9번째 세이브를 신고했다. 김진우는 복귀 후 두 번째 등판에서 449일(2015년 6월13일 삼성전 이후) 만에 승리 투수가 됐다.

한편 경찰청 예비역들의 맞대결에서는 롯데 전준우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날 내야수 신본기·포수 김사훈과 함께 엔트리에 등록, 6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전준우는 첫 타석에서부터 복귀를 알리는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0-2로 뒤진 2회 무사 1·2루에서 타석에 선 전준우는 김윤동이 조수로 선택한 144km짜리 직구를 공략해 역전 스리런을 터트렸다.

안치홍은 안타 없이 두 개의 볼넷만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1루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난 안치홍은 두 번째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냈지만 5회 1사 1루에서는 3루수 앞으로 향하는 병살타를 남겼다. 7회에는 두 번째 볼넷을 골라내면서 이날 공격을 끝냈다. 안치홍은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4-3으로 앞선 1사 1루에서 2루 베이스 옆으로 빠져나가는 손아섭의 타구를 건어내는 좋은 수비를 선보였다.

안치홍은 “2군에서 경기는 했다고 하지만 집중도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 지난 31일 경기 이후 처음이라 감이 떨어진 것도 있었다. 수비라도 해서 다행이다(웃음). 처음에는 팬들의 응원에 긴장도 되기도 했는데 편하게 웃으면서 하려고 한다”고 복귀전을 치른 소감을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44경기 뒀단 생각으로 복귀 준비”

‘예비역’ 안치홍 선발 출전 “묘하게 설렌다”

안치홍이 “묘하고 설렌다”는 말로 타이거즈 복귀 첫날의 심경을 밝혔다.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 4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예비역’으로서의 복귀전을 치렀다. 앞서 3일 경찰청에서의 군복무를 마친 안치홍은 이날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선수단에 전역인사를 했다. 그리고 바로 4일 엔트리에 등록되면서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톱타자 겸 2루수로 안방인 챔피언스필드에 다시 섰다.

경기에서 앞서 안치홍은 “올해 경찰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필드에서 (퓨처스)경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으니 묘한 기분이 든다. 설레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 선수로 살아왔던 지난 2년의 시간 탓에 익숙했던 곳이 아직은 어색한 안치홍이다.

“아직도 휴가나 외박 나온 기분”이라며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웃은 안치홍은 “그



동안 기술적인 변화는 주지 않았다. 스트레스 덜 받고 야구를 하려고 했다. (군대가기 전에)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욕심과 기록이 컸다면 많이는 달라지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달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팀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144경기를 뒀다는 생각으로 복귀를 준비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일 수도 있는데 내 할 것만 하자는 생각이다. 복귀를 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주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편안하게 하면서 자리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홍구 “제대자들이 부럽네요”

덕아웃 T 특특

▲난 끝났어 = 안치홍의 전성시대가 다시 열렸다. 4일 안치홍이 타이거즈 선수로 돌아왔다. 전날 전역을 한 안치홍은 4일 바로 엔트리에 등록되면서 방방이를 들었다. 선수들에게도 안치홍은 화제의 인물이자 인기스타였다. 이범호는 한승혁이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끝났어. 이제 저기로 관심이 쏠릴 것이다”라고 웃으며 타격 훈련을 하고 있던 안치홍을 가리켰다.

▲(양)현종이한테 혼났어요 = 이범호는 4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1회 선제 투런포에 이어 6회 결승타를 때리는 등 3안타의 활약을 하면서 4-3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날 컨디션 난조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이범호는 “어제 경기에 나왔어야 했는데 (어제 선발이었던)현종이한테 혼났다(웃음). 홈에서 1500안타를 치고 싶었는데 아쉽다. 오래 야구를 해서 얻게 되

는 기록이다”고 밝혔다. 이날 3개의 안타를 더한 이범호는 1500안타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

▲제대자들이 부럽네요 = ‘예비역’으로 복귀한 안치홍을 누구보다 부러운 시선으로 본 이가 있었다. 마필 포수 이홍구가 그 주인공이다. 대졸 4년 차인 이홍구에게는 군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지난 3일 안치홍과 이경록이 경찰청에서 제대를 했고, 이날 상무 병장인 김선빈·임기영도 말년 휴가를 받아 경기장을 동시에 찾았다. 이들을 지켜본 이홍구는 “제대자들이 부럽다”며 부러운 눈을 했다.

▲꼭같아요 = 얼굴이 웃음이 떠나지 않은 ‘야빠’ 김주형이다. 김주형은 지난 3일 첫 아들을 얻었다. 김주형은 “보조개가 들어간다. 나랑 똑같이 생겼다. 웃을 때 너무 귀엽다”며 아들 바보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김주형은 아들이 태어난 3일 슬로포를 터트리면서 팀의 유일한 득점을 기록하는 등 3안타 행진으로 득남을 자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